

농어촌공사,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기술설명회 개최... “깨끗한 농업용수 관리 신기술 적용”

[김상준]

중소기업 성장과 친환경 농업용수 관리 등... 동반성장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성장을 도우며, 깨끗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보급에 나섰다. 8일 농어촌공사는 지난 4~5일까지 열린 (사)한국환경농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신공법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신 친환경 수질 개선 기술의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사의 다양한 수질 조사사업 및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8개 중소기업이 수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공법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저탄소형 다기능 수질정화 장치, 복조 분쇄장치,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선보여, 10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환경·농업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여업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저수지 수질 개선에 기여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기술의 장단점 및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술의 면밀한 검증과 현장 실용성을 높였다.



이승현 환경관리처장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선보일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술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신기술 효과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수질개선실증시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 친화적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